

# 士小節 婦儀에 나타난 주생활 관리에 관한 내용분석

## Analysis of Housing Management as shown in Sa-So-Jul

여주전문대학 가정과

전임강사 주 영 애

Dept. of Home Economics, Yeo Joo Technical College

Full-Time Lecturer : Young Ae, Ju

### 〈목 차〉

I. 서론

II. 본론

III. 결론

참고문헌

### 〈Abstract〉

This study is a content analysis of housing management as shown in the Sa-so-jul.

This book is written by Lee, Duk Moo in 1741 during Chosun dynasty. This contents relates to life management. The contents of housing management were storage, cleaning and equipment management.

The major findings this study are as follows.

- 1) Housing management was charged with woman.
- 2) Contents of housing managements were storage, cleaning and equipment management.
- 3) It goes into detial.
- 4) Housing management relates to clothing & food management.
- 5) In the traditional society, woman have to upright in her actions, which is housing management.

But today things are not what they used to be. A woman does not think anymore to do work housekeeping. But an idea of life does not change. So it is following as shown in the Sa-so-jul.

- 1) We must to clean for housing management.
- 2) Housing management is for my family and our neighborhood.

## 1. 서론

### 1. 연구의 의의 및 목적

전통사회의 여성들이 주로 담당해 온 가내활동은 여성의 생활규범과 관계가 깊었다. 전통사회 여성들에게 요구되었던 四德의 가르침에서도 집안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실천적인 가르침은 매우 중시되었는데 이는 조선시대 각종 여성 규범서를 고찰 분석해 본 결과, 조선 초기부터 후기에 이르기까지 크게 변화되지 않았던 점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이 유사하다 할 지라도 조선조 초기와 후기를 비교해 보면, 각 규범서에서도 초기부터 후기에 모두 婦功의 가르침을 중시 했으나, 후기에 이르르면 좀더 부공의 구체적인 운영방법을 제시하고 있어, 실천성이 강조되었던 것(이영미, 1989)을 알 수 있다.

이런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보면, 조선조 후기의 여성의 가내활동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사소절」을 빼놓을 수 없다. 「사소절」은 조선조 영정조 때 실학자 아정 이덕무(1741년 영조 17년~1793년 정조 17년)의 저서다. 사소절은 〈士典〉〈婦儀〉〈童規〉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婦儀〉는 여성이 가정 내에서 살림살이를 하는데 필요한 지식을 세밀히 관찰하여 매우 현실적인 교훈으로 서술한 것이며, 예의범절도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한국의 가정학 역사를 고찰하면, 사소절의 교훈과 그 가르침이 관련성 있음도 이미 지적되었다.(이인희, 1980, 이영미, 1989)

한편 가내활동은 일반적으로 분류해 보면, 그 목적에 따라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 가정경영, 가족보살핌, 육아, 기타 방문 접대 등(채옥희, 문숙재, 1986, p.71)으로 구분된다. 이는 생활문화의 변화에 따라 각기 생략되기도 하고 확대되기도 했다. 특히 가사노동의 사회화의 개념이 등장한 이래, 많은 학자들은 사회 서비스의 개념을 도입, 각기 생활양식, 가정환경요인, 가정경영 주체자의 사회인구학적 요인 등에 의해 가사노동이 사회화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으며, 한편 지나친 가사의 사회화는 가정의 기능을 상실케 하여 급기야는 가정의 소멸까지 야기시킬지

도 모른다는 견해까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가내활동 변화를 살펴보는 가운데 本 考에서는 주생활 관리를 중심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주생활 관리는 주택이나 가구의 손질, 정리정돈, 청소, 제조, 설비의 관리, 보수, 주생활 용품의 선택과 구입 등이 해당된다. 이중에는 전통사회로 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지속되고 있는 바도 있지만, 거의 사회화되어 가정의 주생활관리 개념속에서 논의 될 가치가 희박해진 내용도 있다.

전통사회와 현대사회를 일선상에 놓고 비교하기란 쉽지 않으나, 本 考에서는 가정학 역사의 일부로 전통사회의 생활상을 살펴볼 수 있는 사소절의 내용속에서 주생활 관리를 고찰하여 이 가운데 200여년이 지난 현대 시점에서도 적용되고 있는 훈육적인 가르침을 되새겨 보고자 한다. 이는 협의로는 당시 주생활관리의 내용을 알게해 줄 뿐만 아니라, 광의로는 그 내용안에 농축되어 있던 가정생활이념이나 가치관을 논의해 볼 수 있는 動因을 부여하며, 주생활 양식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주생활 영역에서 변화되지 않는 관리관념등도 논의될 수 있다는 의의를 지닌다. 따라서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1. 사소절에 나타난 주생활관리의 내용을 살펴보고, 2. 그 내용에 나타난 특징을 논의하며, 3. 주생활양식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는 관리관념의 현대적 의미를 되새겨보고자 하는데 있다.

그러므로써 우리 가정학의 역사에 대한 또 하나의 연구가 되며, 나아가 과거의 가정학 역사가 현대 가정학의 학문적 구축에 기반이 되고 있음을 증명하는데 일조하게 되기를 기대한다.

### 2. 연구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전통사회 여성이 담당해 왔던 주생활관리의 내용을 고찰하기 위해 아정 이덕무의 「사소절」을 분석 고찰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사소절」은 조선조 후기의 한문학자로 유명한 이덕무가 남성 여성 아동의 마음가짐과 몸가짐을 닦는 修身書로 만든 책으로서 특히 婦儀에는 여성으로서 지켜야 할 생활교육 및 가사와 관련된 실천적인 가르침이 상세

히 담겨 있어, 조선조 후기 여성의 삶, 가사활동, 나아가 당시 생활문화를 연구하는데 필요한 서적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를 토대로 하여 이 서적에 담겨 있는 내용을 가정학적인 견지에서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사소절의 내용은 다양하나 본고에서는 주생활 관리로 국한 지어 분석하고자 한다. 시대변화에 따라 가시적으로 크게 변화된 것은 의생활이나 주생활영역이라고 생각된다. 이중에서도 주생활영역은 수리 보수 등 이에 수반되었던 관리를 남녀가 공히 분담하기도 하여 가사분담차원에서 보면 의생활영역과는 또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고, 대부분의 여성 규범서에서도 의복 음식 만들기는 여성의 소임(내훈, 계녀서, 규동요람...)으로 많이 강조되었으나 주생활 관리 부분은 다소 미약하게 다루어졌다. 따라서 주생활 관리에 대하여 전통사회에서 여성에게 요구되었던 내용은 의식생활 부분과는 또 다르지 않겠는가를 생각을 하게 한다.

이러한 까닭으로 연구범위는 조선조 후기의 여성의 주생활 관리 내용의 고찰로 한정하며, 이를 바탕으로 가사관념이나 생활상에 대한 일부 논의도 포함시켰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주생활 관리는 주거관리, 주택관리의 개념과 다소의 차이를 두어 사용하고자 한다. 즉 주거관리는 일상적인 청소 손질 손상되거나 부식된 부분의 수선, 개축 등이 포함되는 주택관리와 주택시장에 참가하여 선택 및 구매를 하는 행위, 주택내에서 일어나는 가족간의 상호행동의 관리등까지의 경영관리나 생활관리가 모두 포함된다(윤복자, 지순, 1992, pp.224-232) 그러므로 주택관리는 주거관리의 일부분이 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사용하려는 주생활 관리는 주택 및 주거관리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면서도 본 연구 범위가 전통사회, 구체적으로는 조선조 후기를 중심으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그 당시의 주거관리에 대한 생활문화적인 연구해석을 위해, 그리고 현대적 의미의 주거관리의 내용으로 반드시 포함되지 않는 바도 있으므로 폭넓은 의미로서 생활이라는 용어를 추가시켜 주생활 관리라 명명, 사용하였다.

## II. 본 론

### 1. 「사소절」의 생활사적 연구서로서의 의의

사소절은 조선 영조51년(서기 1775년)저자 이덕무에 의해서 씌여진 책이다. 저자 이덕무는 당시 북학파에 속한 실학자로 실제의 사실을 통하여 올바른 진리를 찾아낸다는 이른바 實事求是의 이념아래 모든 사회상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고 생각하고 기록하였으므로 「사소절」은 무엇보다 실생활과 결부된 귀중한 책이라 하겠다.

사소절은 남자의 예법 士典 5권, 부녀자의 예절 婦儀 2권, 어린이의 규범 童規 1권 등 모두 8권으로 마련하고, 총 924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서문과 각 편의 찬술의의에서 39항목을 할애하고 나머지 885항목이 3편으로 나뉘어져 서술되어 있다. 각 편의 장별 항목 수는 다음 <표 1>과 같다.

사소절의 저술경위를 살펴보면, 아정은 인간의 인격 완성을 위해서는 인간의 기본적인 행동양식인 소소하고 세세한 행동에서부터 법도와 예절을 갖추어야 한다고 여겨, 이를 어려서부터 평소의 생활 습관으로 형성하여야 한다고 느꼈다. 당시 이같은 내용의 책은 朱子の 「소학」이 유일한 것이었다. 이를 읽고 그 법대로 따르고자 하였으나, 「소학」의 내용은 시대적, 공간적으로 거리가 많이 너무 많기에 당시 사람들이 실천하기에는 부적당함을 감지하고 새로이 당시 사람들에게 적합한 소절의 내용을 만들고자 하였음이 「사소절」의 저술동기이다(손직수, 1993, p.48) 사전편의 내용은 전통사회의 남성들의 역할인 가정의 외적인 일들, 즉 사회생활상의 인간관계와 출입시의 행동을 중심으로 씌여 있으며, 부의편은 여성이 가정내에서 살림살이를 하는데 필요한 지식을 세밀히 관찰, 기록하였으며, 동규편에서는 아동의 교육과 습관 형성에 그 내용이 치중되어 있다.

「사소절」은 우리나라의 사회와 교육현실에 맞게 쓰여진 조선시대 대표적 교육 고전의 하나이다. 전편에 걸쳐 인도주의, 평등주의, 실질주의 등의 주장과 교육에 있어서 개인차의 존중, 생활지도에 있어서 중용사상, 대인관계등은 현대교육에서도 중요시

〈표 1〉 「사소절」 각 편의 장별 항목수

편 별	장 별										계
	성 행	언 어	복 식	동 지	근 신	교 습	인 룬	교 접	어 하	사 물	
사 전	44	38	57	72	49	49	37	121	22	73	562
	26	15	42	22		17	26	8		43	
부 의				동 지		교 습	경 장			사 물	124
				33		38	21			32	
계	70	53	99	127	49	104	84	129	22	148	885

하고 신장되어야 할 교육자료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와 같이 사소절의 저술동기나 가치를 토대로 볼 때, 사소절은 생활사적 연구서로서도 귀중한 의의를 갖는다고 하겠다. 즉 사소절은 당시의 사회정치 경제 기술적 생활환경에 대한 이해를 도우므로서 생활문화를 창조해 낸 사회문화적 환경에 대한 폭넓은 가르침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이 서적은 우리의 후손에게 보이지 않는 조상으로부터 이어받고 있는 생활문화의 맥을 극명히 보여주는 실증자료가 되고 있으며, 더우기 그 내용이 우리의 생활문화에 대한 긍정적 가치찾기 노력의 모범이 되고 있음을 볼 때 생활사적 연구서로서의 의의는 자못 크다고 본다.

## 2. 「사소절」 부의에 나타난 주생활 관리의 분석적 고찰

### 1) 내 용

주생활 관리의 영역을 주택이나 가구의 손질, 정리정돈, 청소, 제조, 설비의 관리, 보수, 주생활 용품의 선택과 구입 등(채옥희, 문숙재, 1986)으로 구분해 볼 때 사소절에 나타난 주생활 관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살펴 볼 수 있다.

#### (1) 주택의 정리정돈

사소절에 나타난 주택의 정리정돈은 주생활관리 차원에서 보면, 수납에 해당하는 것이라 여겨진다. 이 내용을 각 章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性行에는

…그릇을 내어던져 부수고, 창문을 부수고 뒤집어 놓는 등 독한 행동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악독한 부녀자가 아니고 무엇이라?

(擲碎器皿 撲翻窓戶 以肆其毒 非惡婦而何)

라고 하여 정리정돈의 책임이 여성에게 주어져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바른 행동거지를 하도록 일깨우고 있다는 점도 볼 수 있다. 한편 服食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있다.

속옷과 이불은 남에게 그 속을 보이지 말라.

(褻衣衾 不見裏)

이불과 베개와 요와 요강은 보를 가지고 잘 덮어서 번거롭게 남들이 보이지 않도록 하고, 수건과 빗집은 역시 조용한 곳에 간직하고, 족집게와 참빗과 솔과 귀이개 등은 남녀가 서로 통용하지 말 것이다.

(衾枕褥虎子 以陌幕之 不煩人見 巾帔櫛匣 亦藏屏處 鑷篦玦子 鬚篦 男女不相通用)

일상생활의 수납과 정리정돈의 요령을 알려주고 있으며, 이와같은 정리 정돈시에도 남녀의 구별을 가르치는 禮를 실천하도록 하였음을 볼 수 있다. 수납물품 중에도 보이지 말아야 할 것을 구별하여 보관하였던 것이다. 動止에도 정리정돈과 관련된 주생활관리 내용을 볼 수 있다.

빗과 참빗을 깨끗하게 손질하고, 붓과 벼루를 바르게

〈표 2〉 「사소절」 각 편의 내용

사 전		부 의		동 규	
명칭	내 용	명칭	내 용	명칭	내 용
성행	선비로서 갖추어야 할 성품, 행실	성행	남녀 본성의 회복, 부인의 음덕	동지	아동의 마음가짐, 몸가짐
언어	언행상 유의사항	언어	언어표현의 태도, 방법	교습	조기교육의 중요성, 자녀 교육책임, 교육목표, 학습방법
복식	의생활, 음식에 대한 예의, 유의사항	복식	의복 청결, 실용, 유행, 음식의 정결, 조리시 유의사항	경장	부모섬기기, 스승공경, 어른과 손님에 대한 예의
동지	군자의 행동거지와 유의사항	동지	개인의 정서적 표현동작, 출입시 동작	사물	아동들이 일과 물건다룰 때 주의사항
근신	근신의 의의, 신명의 보호, 건강, 인간관계상의 유의사항	교육	태교의 실천, 산후조리, 양육법, 아동교육의 중요성, 독서		
교습	덕성 중시 이유, 선비의 본분, 학습내용	인륜	부부, 고부관계, 동서관계, 딸사위와의 관계, 며느리 사위선택		
인륜	인륜관계의 의미(부부, 부자, 친인척)	제사	제사형식학습, 정결, 정성, 미신타파		
교접	교제시 태도, 교우관계, 손님접대, 대인관계에 대한 교훈	사물	가계운영방법, 가정내 정결 위생, 미신타파, 친척간 교훈		
어하	자녀 훈계방법, 가족다스리기, 어른의 역할				
사물	일상생활의태도, 생활의 지혜, 청소, 정돈, 물건의 대차, 술담배관리, 허례허식 배척, 미신타파				

정리하여 두며, ...  
(淨刷掃櫛 整置筆硯)

정리정돈시에는 청결도 중요하게 생각하여, 빗과 참빗같은 소소한 물품조차 잊지말고 깨끗이 하라고 일컬고 있다. 한편 붓과 벼루를 바르게 정리하여 두라 일컬은 바를 보면, 잘 정리정돈 된 가운데 글을 읽고 써야 한다는 기본적인 학습 자세를 강조했던 것도 유추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부의편에서도 動

止에 이 글이 삽입되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事物에는 일상용품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사물장은 원래 ‘살림살이’ 즉 가계운영에 있어서 합리적인 운용을 위한 부녀자의 本業과 副業, 금전의 대차관계, 물품의 수납관리, 가정내의 청결, 위생등의 내용이 비교적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그 중 정리정돈과 관련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도방장(여자들이 거처하는 안방)안에 간직된 그릇 같은 일용품은 크고 작고 성하고 낡은 것을 가릴 것이 없이 반드시 있는 곳을 기록하여 둘 것이지, 혹시 함부로 돌려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다.  
(閨閣之內 日用器什 無論巨細完缺 必記在處 無或放失)

현재 주생활관리 차원에서 수납 방법을 설명할 때, 접근성, 가시성, 융통성, 유지관리성(윤복자, 지순, 1992)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근거해 볼 때 반드시 있는 곳을 기록하여 두라는 점은 가시성과 유지관리성을 강조했던 것이라 하겠다. 소소한 물품은 자칫 제자리에 보관하지 못했을 경우, 찾기 위해 필요치 않은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이를 경계하기 위함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정리정돈할 때 부녀자는 항상 부지런해야 한다는 점도 간과하지 않았다. 그래서 게으름은 부인의 허물이라고 까지 하였다. 動止에 나타나 있는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늘 잠에 빠져 일찍 일어나지 않는 것은 부인의 가장 나쁜 행실이다. 집안의 규범이 무너지고, 집안 일이 망쳐지는 것은 게으른 부인의 허물이다.  
(耽睡不早起 最是婦人之惡德 規範之壞 家務之敗 懶婦人之罪之)

## (2) 청소

청소는 주부의 가사노동의 주요한 부분이며, 가족 구성, 건축양식, 건축재료, 그의 주거환경조건 등에 따라 차이가 있다.(안옥희, 신경주, 학지사, 1995, p. 54) 사소절에 나타나 있는 주생활 관리 중 청소에 해당하는 것을 보면 당시의 생활양식, 건축재료나 양식, 그의 주거환경조건 등도 살펴볼 수 있다. 事物에 나타나 있는 청소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마루를 쓸고, 그릇을 씻고,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을 없애어, 조출하고 정결하게 하기에 힘쓸 것이다. 이런 까닭으로 <지어미 婦>자는 그 글 자를 만들 때 게집녀(女)가 따르고 비추가 따르게 한 것인데, 이는 여자는 항상 빗자루를 들어야 한다는 뜻이다. 아내(妻)도 역시 키와 비를 가진 게집하인 이름이다.  
(掃軒堂 拭器皿 祛汗穢 無潔淨 是姑 婦人爲文 從女從

帚)

청소는 여성의 소임임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 즉 예로부터 衣 食 住生活의 기본적인 관리는 여성의 소임이 되어왔다는 점을 이 문헌을 통해서도 볼 수 있다. 즉 조선조 후기는 실학사상이 도입되고, 그 이전시기와는 매우 빠르게 변화하는 시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男女의 分業 및 남녀구실의 차이가 극명히 구분되어 왔다. 이와같은 청소에 대한 훈계는 다음에 보다 상세히 언급되어 있다. 그 내용도 역시 事物에 나와 있다.

머리를 빗어 떨어진 머리털을 어지럽게 버려서 옷 사이나 반찬 속에 끼이게 하여서는 안된다.  
(不可亂棄梳餘之髮 纏於衣間 蟻於餐中)

새것과 물고기 비늘과 채소잎과 과일의 씨를 마루나 섬돌에 어지럽게 버리지 말 것이다.  
(鳥羽 魚鱗 菜葉 菓核 勿亂棄軒 砌)

또한 부엌의 청소는 특히 유념해야 할 사항이었다.

服食에는

도마와 밥상은 깨끗이 닦고, 솔과 가마는 잘부서어 놓아야 하며…  
(故拭俎几 以滌鼎鑪)

하였다. 또한 事物에는

부엌 위의 그을음과 천장의 거미줄은 사람이 드물게 보아 잘 살피지 못 하는 것이다. 옷과 수건이 깨끗하지 못하거나 음식이 정결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다 이에 말미암은 것이니 날마다 날마다 자세히 살피고 있는 데로 없애 버리는 것이 옳다.  
(廚上之煙煤 藻井之蛛絲 人所罕見 而不察 然衣巾之不潔 飲饌之不精 皆由於此 日月詳檢 隨有而隨除之可也)

음식을 정갈하게 잘 만들기 위해서는 부엌환경의 청결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매일 사용하여 더러워지기 쉬운 부엌의 청소와 점검은 매일하며, 부

업주변의 기름때는 주1회 점검하고, 부엌수납장 배수관 청소 등은 매달 1회 실시(안옥희, 신경주, 1995, p.58)할 것을 현대의 주거관리에서도 지적되고 있는데, 이는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붕은 주택의 소모과정에서 가장 빨리 손상이 나타나고 그것이 원인이 되어 축조의 노후가 일어나며, 주택 손모의 최종과정이 지붕의 노후라는 점에서 볼 때 주택의 보수상 가장 유지 보수에 주의하지 않으면 안되는 부위이다(안옥희, 신경주, 1995, p.48). 그런데 사소절에 나와 있는 지붕관리는 보수에 대한 언급보다는 여성으로 청소를 잘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事物에는

기왓골의 빗물은 새통과 벌레집을 적실 것이므로 더럽고 독한 것이 모인 것이니...

(瓦溝雨水 鳥失蟲窩之所清 穢毒之聚)

지붕의 청결유지가 잘 되면 결국 손상을 줄이고 지붕의 노후화를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와같이 요구했던 것이라 판단된다.

### (3) 설비의 관리

현대적 의미의 설비관리는 전기배선, 가스배관, 수도배관, 공조설비, 욕실 화장실의 설비 등을 관리함을 말한다. 그러나 전기 가스 수도 공조 설비 등이 갖추어지지 못했던 당시 조선조 후기에는 유일한 전기설비로 알아왔던 등불관리에 대한 가르침의 내용을 사소절에서 찾아볼 수 있다. 動止에는

모름지기 등불을 밝히고 화로에 불을 잘 묻어 놓고, 기명(器皿)을 정제 해 놓고서 엄숙하고 공순히 기다리다가...

(...須明燈伏火 整器皿 肅恭而待...)

라고 되어 있으며, 事物에는

손가락으로 등잔불 심지를 돌우고서 창문이나 벽에 문지르지 말라. 등 불심지를 길게 돌우지 말고, 창문이나 벽의 종이를 찢어서 등잔불을 켜 지 말라.

(毋以指挑燈 拭于窓壁 挑燈毋長也 勿燃窓壁紙引燈)

하였다. 전통사회에서 불관리는 난방, 취사, 조명을 위해서 중시되었던 활동이다. 그래서도 규합총서 格物에는 불을 만들기 위한 방법 등이 자세히 나와 있다. 전기나 기타 에너지원의 활용이 미흡했던 전래 주거에서는 불을 만들고 오래도록 유지관리하는 일은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주영애, 1995, p.61) 이렇듯 사소절의 부의편에서는 여성으로서 관리해야 할 등불에 대한 관리를 조심스럽게 하도록 일깨웠다.

### 2) 특징 및 논의

사소절 부의는 여성들이 살림살이 하는데 필요한 훈계 내용을 담고 있다. 주생활관리는 앞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주택이나 가구의 손질, 정리정돈, 청소, 제조, 설비의 관리, 보수, 주생활용품의 구입등에 해당하는 것인데, 사소절 부의에는 이중에서도 주택의 정리정돈, 청소, 설비의 관리등에 관한 내용을 주고 다루고 있다.

<표 3>에 나타나 있듯이 부의편에 실린 주생활 관리 내용은 총 14항목으로 분석되는데 주택의 정리정돈은 성행장 1항목, 복식장 2항목, 동지장 2항목, 사물장 1항목으로 6항목에 해당되며 청소는 복식장 1항목 사물장 5항목으로 총 6항목이다. 설비의 관리는 내용이 가장 적는데 동지장에 1항목 사물장에 1항목으로 2항목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주생활 관리는 사물장에서 7항목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어 있으며, 설비의 관리에 비하여 주택의 정리정돈과 청소가 각각 6항목으로 치중되어 설명 되어 있다. 주생활 관리 내용이 사물장에서만 언급된 것이 아니라 性行, 服食, 動止, 事物등에서 찾아 볼 수 있는 것은 주생활 관리가 단순히 작업적인 차원에서 강조되는 것 뿐만아니라 생활자세, 성품 및 규범과도 관련성 있게 훈계되었음을 알 수 있게 하는 바라 하겠다. 즉 事物章을 제외한 성행, 복식, 동지편은 직접적으로 주생활 관리와 관련이 깊지 않은 것으로 보기 쉬우나, 일단의 작업을 위해서는 기본적인 마음가짐부터 다잡고 해야 한다는 것을 일깨우기 위한 저자의 깊

〈표 3〉 「사소절」 부의에 나타난 주생활 관리의 장별 항목 수

명칭	성행	언어	복식	동지	교육	인륜	제사	사물	계
정리	1	·	2	2	·	·	·	1	6
청소	·	·	1	·	·	·	·	5	6
설비	·	·	·	1	·	·	·	1	2
계	1	·	3	3	·	·	·	7	14

은 뜻이 있었기 때문에 다양한 章에 그 내용을 삽입시킨 것이라 생각한다.

사소절 부의에 나타난 주생활 관리의 몇가지 특징을 정리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소절 부의에서 주생활 관리는 여성의 소임임을 강조하며, 禮를 실천하는 방법으로 요구되었다고 본다. 의생활이나 식생활은 복식편에서 주로 강조되며 주된 여성소임으로 여겨져왔으나 주생활 관리는 그에 비하면 다소 여성의 소임으로 강조하는 바가 제한적이기는 하나 청소를 비롯한 정리정돈의 내용을 여성의 주된 임무로 묘사하고 있다. 즉 婦의 글자형성 의미를 열거하면서 이를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남녀가 서로 통용해서는 아니될 물건을 서로 달리 보관하도록 일컫고 있고, 남에게 보여서는 안 될 물품도 바르게 정리할 것 등을 언급하여 결국 생활 자체가 禮를 실천하는 방법임을 가르치고 있다.

둘째, 주생활 관리내용은 정리정돈, 청소, 설비의 관리(조명관리)등으로 제한 되어 있다. 즉 여성이 담당했던 주생활 관리는 제한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가사 분담내용을 보면, 주생활 영역은 남편이 많이 분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주택의 보수 손질 등은 주로 남편이 담당(주영애 외 2인, 1991)하며, 미혼인 대학생들조차도 미래 혼인 후 가사를 분담하면 주택손질이나 관공서출입, 집안 청소 등은 남학생이 담당하겠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주영애 외 2인, 1993) 이는 전통사회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소학이나 내훈, 제녀서, 규등요람등의 여성 규범류에서 의식생활은 여성의 주된 소임으로 강조해왔던 반면 주생활 관리 부분은 크게 강조 하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주생활 관리의 일의 성격상 남성

들에게 많이 일임되어 왔었기 때문에 여성 규범으로 까지 이를 강조할 필요는 없지 않았나 여겨진다. 이를 토대로 보면, 예로부터 남성과의 분담이 이루어졌던 바는 주생활관리가 아니었겠나 생각된다. 따라서 사소절 부의에서 여성의 소임으로 강조된 주생활 관리 내용은 의식생활관리 보다는 내용이 축소되어 있는 것이라 생각된다.

셋째, 사소절에는 주생활 관리내용이 구체적인 가르침이 될 수 있도록 제시해 놓고 있다. 정리정돈의 내용은 바로 수납요령을 일컫은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수납의 일반적 원리만을 제시하기 보다는 일상용품의 수납방법을 자세히 수록하고 있다. 예를들어 이불과 베게는 어떻게 하며, 참빗과 솔 귀이개 등은 어떻게 사용 관리하라는 것 까지 다루고 있다. 평상시 주의깊게 다루지 않는 물건이나 사용후 들 곳을 정해 놓지 않아 찾는 번거로움이 많은 물품들에 대한 내용을 지적하고 있다. 한편 사소절의 내용에 대해 다 알고 있는 내용을 굳이 지나치게 상세히 표현하여 가르칠 필요가 있었는지에 대해 의구심을 갖을 수도 있다. 그러나 알고 있는 사실이라도 예나 지금이나 잘 실천되지 못하는 바가 있으므로 그를 경계하여 지키도록 했을 것이라는 생각도 할 수 있다.

넷째, 주생활관리는 의복, 음식을 짓기 위한 가사 활동에도 모두 관련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성행편의 그릇관리, 사물의 그릇 및 일용품관리, 사물편의 머리카락 세기 물고기 비늘 채소잎 과실씨 청소 등을 통해 청결 정결하도록 일깨웠다. 이는 나아가 의식생활을 보다 격이 있게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밑바탕이 되는 일이라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하겠다.

다섯째, 주생활 관리를 위해서는 우선 마음가짐이



중요시 되었다는 점도 찾아볼 수 있다. 바른행동거지는 바로 마음에서 우리나라의 것임을 성행에서 보았다. 그리고 주생활 관리를 위해 일찍 일어나는 것은 근면한 생활태도를 갖도록 일깨우는 행실에 대한 다짐이었으며, 집안관리가 제대로 안되는 것은 규범이 무너지는 것이며, 부인의 허물이라고까지 지적하여 부디부디 경계하여 관리하도록 하였다.

### Ⅲ. 결 론

이상과 같은 사소절 부의의 주생활 관리 내용은 현대적인 의미로 보면, 비판될 소지도 다분히 있다. 그러나 저술시의 사회, 문화적 배경을 기본전제로 보자면, 당시로서는 유효적절한 훈계이며, 가르침이 되었다고 생각된다. 또한 구체적이고 사소한 부분까지 일깨운 점들은 오히려 사소하기 때문에 간과할 수 있는 내용을 바르게 가르치는 것 부터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고 느꼈을지도 모르는 저자의 뜻으로 해석하고자 한다.

시대는 변화했고, 가내에서 이루어졌던 여성의 소임이나 가사의 내용도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사소절이 쓰여진지 200여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그 안에 담겨진 주생활 관리의 기본 뜻과 생활관념에는 변치 않는 바도 있고 유지해야 할 바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 몇가지를 지적하며 결론을 맺으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생활 관리에서 우선적인 것은 청결 관리라 보겠다. 이는 이미 분석했던 사소절 부의에서 강조되었던 바다. 특히 현대 의학이 발달되었다고는 하나 오늘날은 각종 환경오염으로 인한 여러가지의 또 다른 질병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다. 기후조건의 변화, 대기오염, 수질오염, 폐기물 오염등으로 인한 각 가정의 주생활 관리상의 문제에서 우선시 되어야 할 점이 바로 청결이라 여겨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청결관념이 특히 여성에게 요구되어 왔던 점은 현대생활에 적용하여도 바람직하게 수용해야 할 생활관념이라 생각된다. 가정의 모든 관리에 여성이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은 거의 변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둘째 주생활 관리는 단순한 작업수행의 의미만이

아니라 가족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 애정을 갖고 해야 할 일이라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를 과거에는 禮의 실현으로 연결시켜 왔으나(주영애, 1992), 그 의미를 재해석하여 보자면 현대에서는 바로 나 자신, 가족 나아가 이웃 생활 환경까지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 바로 사소절에서도 강조하는 실천적인 가르침이라 생각한다.

셋째 주생활 관리는 가내활동이나 반드시 여성에게만 일임될 수 없는 성격의 내용이므로 예로부터 지금까지 수행해오던 방식과 유사하게 남녀가 적절히 일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분담하는 일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진다. 200여년전에 쓰여진 사소절에서도 그와 같은 일면을 볼 수 있다는 것은 매우 흥미롭고, 나아가 우리의 과거 조상들의 삶과 의식에도 매우 합리적인 면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이상과 같이 本 考에서는 세가지 내용을 사소절의 주생활 관리상 현대적 재조명의 차원에서 논의해 보았다. 이는 전통생활문화를 연구하는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 小考에 불과하다. 이에 대한 재론과 비판도 많으리라 생각되나 전통적인 삶이나 생활자세를 비합리적, 전근대적, 몰가치적이라고 비판하는 오류에서 벗어나, 전통의 생활문화를 되새김하는 하나의 시발이 되었으면 한다.

### 【참 고 문 헌】

- 1) 김종권 역, 이덕무, 「사소절」, 서울: 명문당, 1987.
- 2) 배용광 변시민, 「한국사회의 규범문화」, 서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4.
- 3) 손직수, “사소절에 나타난 전통가정교육”, 「한국인의 전통가정교육사상」, 서울: 한국정신 문화연구원, 1993.
- 4) 안옥희, 신경주, 「주거관리학」, 서울: 학지사, 1995.
- 5) 윤복자, 지순, 「기초주거학」, 서울: 신평출판사, 1992.
- 6) 윤봉호, “이덕무의 부녀교육론 - 사소절 부의편을 중심으로 -”, 「한국문화연구원 논총」 제 32집, 이화여자대학교, 1978.
- 7) 이영미, “조선조 여성의 가정교육에 대한 현대적

- 재조명”,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9.
- 8) 주영애 외 2인, “전통생활문화를 토대로한 남편의 가정경영관과 가사작업에 대한 의식과 수행”, 「대한가정학회지」, 제29권 제4호 1991.
- 9) \_\_\_\_\_, “조선조 상류주택의 살림공간에 관한 생활문화적 고찰”,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2.
- 10) \_\_\_\_\_, 외 2인, “전통생활문화를 토대로한 가사관과 오늘날의 가사분담 및 가사작업의 가치에 대한 인식과의 관계”, 「생활문화연구」, 제7집, 성신여자대학교 생활문화 연구소, 1993.
- 11) \_\_\_\_\_, 이길표, 「전통가정생활문화연구」, 서울: 신광출판사, 1995.
- 12) \_\_\_\_\_, “규합총서에 나타난 주택관리의 내용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13권 제3호, 1995.
- 13) 채옥희, 문숙재, 「가사노동」, 서울: 신광출판사, 1986.